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

최 옥 임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13세) 60명, 중학교 3학년(16세) 6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격적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리라(1998)와 문진명(2000)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따돌림을 지지하는 자기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은 Salby와 Guerra(1988), Huesmann과 Guerra(1997) 및 윤리라(1998)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그리고 또래 지명은 Crick, Casas, 그리고 Mosher(1997)의 Peer Nomination Instrument 중 따돌림과 관련된 항목과 문진명(2000)의 또래 따돌림 피해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일원변량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 청소년 집단 및 일반 청소년 집단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여자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쉽다고 지각하고, 남자이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 남자일수록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또래 따돌림, 가해 청소년, 사회정보처리, 인지적 특성, 규범적 신념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

2) 교신저자: 정옥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obchung@korea.ac.kr

I. 서 론

최근 또래 관계에서 만성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존재와 상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거나, 전학을 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상담 센터, 1999). 이에 따라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 이상균, 1998; Crick & Biggee, 1998; Crick, Casas, & Ku, 1999; Graham & Juvonen, 1998; Hodges et al., 1999)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또래 관계 부적응 및 학교 폭력을 해결,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명 ‘왕따’라고 불리는 현상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일체의 언어적·신체적 행위를 지칭한다(구본용, 1997). 특히 이런 왕따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약점을 들추어내어 모함하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기, 바보 만들기, 무시하거나 같이 놀지 않기, 욕하고 놀리며 망신주기,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기, 활동에 끼워 주지 않기 등의 방법에서부터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현저한 공격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이춘재 외, 2000).

또래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괴롭힘 및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의 현재 및 장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최보가와 임지영, 1999; 이시형, 1998; 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한편 많은 또래 문제 중재 프로그램(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6;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9; Olweus, 1993)은 따돌림의 원인 분석과 예방보다는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즉, 많은 중재 프로그램들이 따돌림 현상의 원인 측면인 가해 청소년의 특성을 등한시한 채 가해 청소년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00). 한편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밝힌 연구(도현심, 1998; 이점숙과 유안진, 1999)도 있지만, 아직까지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설명함에 있어 가해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그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의 원인과 유발 과정에 대해 규명하고자하며 특히 가해 청소년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행동을 구성하는 인지적 특성을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는 사회정보처리 기술인 귀인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되며, 또래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귀인은 청소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또래 따돌림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대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Wass, 1988). Hymel(1986)에 따르면 청소년의 또래 행동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험한 과거의 또래 관계 내용(또래 무시, 또래 거부 등)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며, 그 반응을 수행했을 경우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등 일종의 편견이 존재하게 되며 이 상호작용이 또래 관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래 피해에 관한 최근의 연구(Graham & Juvonen, 1998)에서는 피해 청소년들은 상황적 어려움을 자기 비난으로 귀인하고, 가해 청소년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청소년

에 대한 비난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가해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에게 동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Hoover, Oliver & Hazler 1992; Rigby & See, 1991)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귀인, 반응 탐색, 반응 결정 등은 또래 따돌림을 설명하는 유의한 기제가 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 따돌림에서의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사회인지적 모델 연구(Coie & Dodge, 1987)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 행동은 상황에 대한 개인적 해석인 인지적 평가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Berkowitz, 1977; Novaco, 1978). 또한 공격 행동 및 문제 행동을 사회인지적으로 접근한 연구자(Berkowitz, 1997; Dodge, 1986; Novaco, 1978)들은 문제 행동은 특히 그 행동을 매개하는 사회 인지적 결함과 왜곡된 사고과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Crick과 Dodge (1994)의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첫 단계인 단서에 대한 부호화와 해석에 있어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해석할 때 더 적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며(Dodge & Newman, 1981),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이미 잘 파악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단서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Crick & Dodge, 1994). 귀인 연구에 따르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이 단계에서 애매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를 또래의 책임으로 돌리거나(안지영, 1992), 또래의 행동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laby & Guerra, 1988).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상대방의 의도 단서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함을 보이고(Coie & Dodge, 1987;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 반응을 적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고(Slaby & Guerra, 1988), 도발 상황이나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과 관련한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며, 친사회적 반응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Quiggle et al., 1992; Richard & Dodge, 1982). 마지막으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Quiggle et al., 1992), 자신이 산출하고 결정한 반응의 수행이 더 쉽다고 지각하는 반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다(Perry et al., 1990).

한편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행동-결과 의 당위성에 기초해 특정한 반응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내적 판단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기준이 바로 규범적 신념이다(Bandura, 1973). 즉, 규범적 신념은 타인의 또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행동 수행에 있어 동기적 기능과 규제적 기능을 한다. 또한, 규범적 신념은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 특정한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와 관여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규범적 신념은 기존의 단서 해석 및 반응 평가, 결과 기대, 자기 효능감 등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된다(Crick & Dodge, 1994). Huesmann와 Guerra(1997)에 의하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또래 관계 조작 행동을 더 승인하는 경향이 있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했으며, 어린 시기에 형성된

규범적 신념이 이후 문제 행동 및 부적응의 정도를 더 잘 예측해 준다고 한다. 또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용인될 것이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Slaby & Guerra, 1988).

이처럼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의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각 사회정보처리 단계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 적대적인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적대적 혹은 고의적인 것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해석은 행위자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석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을지라도 문제 행동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응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문제 행동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행위자의 공격적 행동 및 문제 행동은 또래의 보복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또래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결국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이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요약하면,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

지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본 연구를 통해 따돌림 현상의 원인에 관한 체계적 진단의 발판을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중재·예방 프로그램 구축에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은 사회정보처리 과정과 규범적 신념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에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에는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은 성별과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가?
4.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은 성별과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13세) 60명, 중학교 3학년(16세) 60명으로 총 120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성

(단위: 명)

변 인	내 용	가해 집단	일반 집단	전체
성별	남	15	15	60
	여	15	15	
연령	초등학교 6학년	15	15	60
	중학교 3학년	15	15	
전체		60	60	120

6학년 5학급, 중학교 3학년 6학급 학생에게 각각 155부와 21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12부를 제외하고 353부를 통해 연구 집단을 구성하였다. 학급 구성원의 10~20%가 따돌림을 주도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9;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9; 천선아, 1999)에 의거하여 가해 집단을 6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간 비교를 위해 가해 집단과 같은 수의 일반 집단을 구성하여 총 1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 도구

또래 지명

또래 지명은 Crick, Casas, 그리고 Mosher(1997)의 Peer Nomination Instrument 중 따돌림과 관련된 항목과 문진명(2000)의 또래 따돌림 피해 지각 척도 중 일치도가 높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따돌림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각 행동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는 또래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본인을 제외한 학급 친구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또래 2명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각각의 청소년에게 지명된 횟수를 1점으로 환산하여 또래 지명 점수를 산출하였다. 지명 점수가 높은 상위 17%(60명)의 청소년을 또래 따돌림에서의 가해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평정에서 한 번도 지명되지 않은 청소년 중 17%를 일반 집단 청소년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정보처리 과정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공격적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을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공

격적 아동을 연구한 윤리라(1998)의 도구와 또래 따돌림에서의 귀인 유형을 측정한 문진명(2000)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자들이 제작하였다. 측정 도구는 3개의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애매한 상황에 대해 청소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각 상황은 또래의 행동이나 처지에 대한 모호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상황의 첫 번째 질문은 주어진 또래의 상황이나 행동을 따돌림과 관련 없는 것으로 귀인하는 것과 따돌림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것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반응 탐색에 관한 것으로서 각 상황에 따라 청소년이 따돌림 행위, 괴롭힘 행위, 친사회적 행위 중 어떤 반응을 가장 많이 탐색하는가를 측정한다. 세 번째 질문은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따돌림 행위를 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은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물음으로써 따돌림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감 혹은 목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이란 외부에서 제공된 사회적 규준이 아닌 행위자 자신이 형성한 내적 규준으로서 자신의 행동-결과의 당위성 및 근거를 마련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규칙이다. 즉, 청소년이 또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따돌림 행위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지지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하는 내적 신념을 말한다. 따돌림을 지지하는 자기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을 측정하기 위해 Salby와 Guerra(1988)의 공

격에 대한 신념 척도와 Huesmann과 Guerra(1997)의 공격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 척도 및 윤리라(1998)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17개 문항은 다음과 같은 5개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 ①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②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준다는 신념, ③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④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⑤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라(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9였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전혀 그렇다 4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지지하는 신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 측정 도구 각 문항을 정교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13세) 5명과, 중학교 3학년(16세) 5명을 각각 심층 면접 조사하였다. 면접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했던 일부 항목에 대해 질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교장 및 학년 주임 교사의 협조에 수업이 끝난 후 각 학년 교실에서 동시에 시행한 후 회수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설문 시간은 약 25분 소요되었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인지적 과정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인지적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지적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05로 정했다.

III. 연구 결과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의 하위 요인별 평균

표 2.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20)

사회정보 처리과정	집단	N	M	SD
상황귀인	가해청소년	60	1.69	.28
	일반청소년	60	1.46	.32
반응 탐색	가해청소년	60	2.09	.27
	일반청소년	60	3.08	.72
자기 효능감	가해청소년	60	2.11	.39
	일반청소년	60	3.12	.42
결과 기대	가해청소년	60	1.53	.50
	일반청소년	60	2.07	.38

표 3.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일원변량분석 (N= 120)

사회정보 처리과정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상황귀인	집단간	1.633	1	1.633	
	집단내	10.852	118	9.196E-02	17.760***
	전체	12.485	119		
반응 탐색	집단간	30.334	1	30.334	
	집단내	63.109	118	.535	56.718***
	전체	93.444	119		
자기 효능감	집단간	30.670	1	30.670	
	집단내	21.181	118	.180	170.862***
	전체	51.852	119		
결과 기대	집단간	10.800	1	10.800	
	집단내	24.307	118	.206	52.428***
	전체	35.107	119		

*** $p < .001$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사회 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주어진 동일한 상황을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친사회적 반응은 적게 산출하고, 따돌림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따돌림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곤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곤란을 적게 느낌으로써 수월하게 따돌림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돌림 행동 이후 얻어질 보상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가해 청소년은 상대방 또래가 자신에게 공손해질 것을 예견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의 세력행사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이라는 것 등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차이

청소년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4의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

표 4. 청소년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20)

규범적신념	집단	N	M	SD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97	.40
	일반청소년	60	1.63	.38
따돌림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87	.59
	일반청소년	60	1.50	.49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2.64	.72
	일반청소년	60	2.58	.76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61	.59
	일반청소년	60	1.41	.52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2.53	.68
	일반청소년	60	2.43	.74

표 5.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일원변량분석 (N = 120)

하위 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집단간	3.734	1	3.734	23.249***
	집단내	18.950	118	.161	
	전체	22.683	119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집단간	2.315	1	2.315	7.487**
	집단내	36.485	118	.309	
	전체	38.800	119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집단간	.133	1	.133	.225
	집단내	69.958	118	.593	
	전체	70.092	119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집단간	2.223	1	2.223	6.999**
	집단내	37.480	118	.318	
	전체	39.703	119		
「따돌리는 행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게 해 준다는 신념」	집단간	.448	1	.448	.890
	집단내	59.419	118	.504	
	전체	59.867	119		

** $p < .01$ *** $p < .001$

념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5개 하위 요인 중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 가해 집단과 일반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과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가해 청소년의 경우 자신은 따돌림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합법적인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 행위를 통해서 또래로부터 자신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그다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차이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해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하위 요인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또래의 상황을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거나, 따돌림과 관련된 반응을 탐색하거나,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 따돌림을 수행한 후 기대하는 결과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의 하위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효능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훨씬 쉽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차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이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각 요인 중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과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만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하위 요인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이러한 신념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따라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하위 요인은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

표 6.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이원변량분석 (N=60)

사회정보처리과정	변량원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상황귀인	성별(A)	1	2.963E-02	.380
	연령(B)	1	7.407E-03	.095
	A×B	1	7.407E-03	.095
	오차	56	7.804E-02	
	전체	59	175.556	
반응 탐색	성별(A)	1	.000	.000
	연령(B)	1	.600	1.608
	A×B	1	2.963E-02	.053
	오차	56	.562	
	전체	59	291.111	
자기 효능감	성별(A)	1	.535	3.440
	연령(B)	1	.417	2.679
	A×B	1	.669	4.298*
	오차	56	.156	
	전체	59	276.333	
결과 기대	성별(A)	1	1.667E-02	.063
	연령(B)	1	.535	2.031
	A×B	1	.313	1.188
	오차	56	.263	
	전체	59	155.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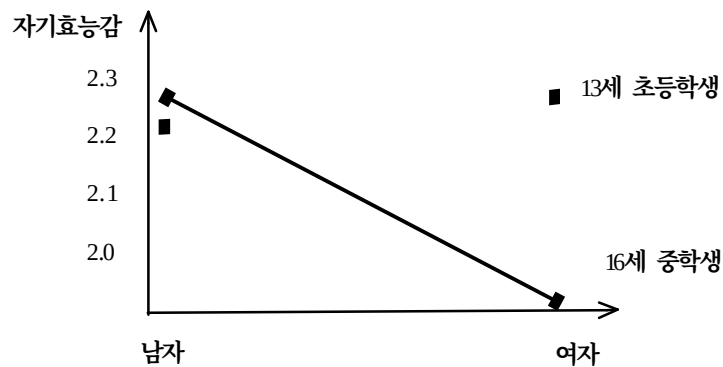
* $p < .05$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표 7.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범적 신념의 이원변량분석 (N= 60)

규범적 신념	변량원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성별(A)	1	.389	2.301
	연령(B)	1	4.167E-03	.025
	A×B	1	3.750E-02	.222
	오차	56	9.474	
	전체	59	246.583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성별(A)	1	.313	.855
	연령(B)	1	1.350	3.690
	A×B	1	9.074E-02	.248
	오차	56	20.489	
	전체	59	232.556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성별(A)	1	.704	1.346
	연령(B)	1	2.204	4.213*
	A×B	1	.337	.645
	오차	56	29.300	
	전체	59	451.250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성별(A)	1	1.452	4.026*
	연령(B)	1	2.963E-02	.082
	A×B	1	.363	1.007
	오차	56	20.193	
	전체	59	117.778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	성별(A)	1	.150	.301
	연령(B)	1	1.667E-02	.033
	A×B	1	1.852E-03	.004
	오차	56	27.896	
	전체	59	411.444	

*p<.05

념의 5개 하위 요인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해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의 차이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주어진 또래의 상황에 대해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상황을 해석할 때 더 적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한다는 연구(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상대방의 적대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또래의 사회적 행동을 판단할 때, 또래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 평판에 따른다는 연구(Hymel, 1986; Hymel, Wagner, & Butler, 1990)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고착화된 또래에 대한 수용의 정보가 또래 행동의 적대적 의도와 상관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해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주어진 또래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따돌림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탐색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또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문제 행동과 관련한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고 친사회적 반응도 더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Quiggle et al., 1992; Richard & Dodge, 1982)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 반응을 적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Slaby & Guerra, 1988)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자기 효능감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

해 자신이 탐색하고 선택한 반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쉽다고 지각하고, 따돌림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Perry et al., 1988)와 일치한다.

넷째, 따돌림 행동에 대한 결과 기대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언어적 문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찰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동, 또래가 평가한 문제 행동, 그리고 자기 보고에 의한 또래 문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Quiggle et al., 1992)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은 행동 수행 이후 또래 관계에서의 우위나 상대 또래의 복종 등의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집단의 청소년은 죄책감이나, 주변의 부정적 평가 등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관해서 하부 5개 요인 중, 「따돌려도 무방하다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가해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 연령일수록 자신의 따돌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청소년의 「따돌려도 무방하다는 신념」은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이나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리낌없이 따돌리도록 만드는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가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죄책감 없이 타인에 대한 따돌림 행동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과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상의 두 요인에서 유의성을 찾지 못한 것은 또래 따돌림의 원인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구본용(1998)에 의하면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들과 따돌림에 동조하는 아이들, 혹은 방관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구분은 또래를 적극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따돌림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청소년의 일부가 일반 집단에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런 청소년의 보고 내용이 따돌리는 가해 집단과 일반 집단간의 차이를 둔화시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적 과정의 차이에 관한 논의이다. 첫째,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요인에 대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 효능감 요인에서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지각하고,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여자의 경우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을 때 직접적인 괴롭힘보다는 정서적 손상의 효과가 큰 간접적인 따돌림을 선호한다는 연구(Hoover et al., 1992)와 연령이 높을수록 행동이 발생할 환경 맥락과 자신의 행동 레퍼토리를 모두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행의 곤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연구(Dodge, 1986)를 뒷받침한다.

따돌림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에 대해서는 5개 하부 요인 중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3학년(16세)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13세)에 비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승인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Huesmann, & Guerra, 1997)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적으로 지체된 인지적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 연구(Dodge, Petit, McClasky, & Brown, 1986; Richard, & Dodge, 1982)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니었으며, 고등학생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령이 근접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비교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해 청소년 집단 및 일반 청소년 집단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해 청소년은 또래의 상황을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고, 따돌림과 관련된 반응을 더 많이 탐색하였고, 따돌림을 수행하

는 자기 효능감이 높았으며, 따돌림 행동을 한 후의 결과를 자신에게 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성향이 있었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도, 따돌림 행위를 해도 된다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은 그다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여자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쉽다고 지각하고,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 남자일수록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따돌림 행동에 관한 규범적 신념에 관한 유의성은 앞으로의 또래 따돌림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해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규범적 신념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감적 이해 능력 키우기 혹은 교사 및 부모의 훈육 등의 포괄적인 차원보다는 구체적인 요인에서의 효과적인 교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따돌림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 등의 잘못된 신념을 밝히고 이를 집중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반면, 집단간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이나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등은 집단 메커니즘 혹은 또

래 문화 차원에서 해석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따돌림에 관한 일부 신념은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 학교 집단 의식 혹은 또래 문화 형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또래 따돌림 평정 척도의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따돌리는 가해 청소년을 선별해 내는 것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에 모든 연구 요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적절히 집단을 선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 평정 척도가 가해 청소년을 선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 (1998).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청소년 상담 문제 연구 보고서 29: 따돌리는 청소년들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도현심 (1998). 인성 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동아일보 (2000). 학교 폭력 방안 효과 다했나?. 7월 31일자 기사.
- 문진명 (2000)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또래 피해 지각에 따른 또래 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친구관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97/7.
- 안지영 (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논문: 사회 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리라 (1998).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균 (1998).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시형 (1998).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이점숙·유안진 (1999).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춘재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천선아 (1999). 왕따의 모든 것: 집단 따돌림이젠 사라져야 한다. 어린이 동산, 3월호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 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999). 집단 따돌림(왕따)의 실태와 대처방안.
- 최보가·임지영 (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편집부.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1977). Situational and personal conditions governing reactions to aggressive cues. In D. Magussen and N. S. Endler (Eds.), *Personality at the crossroads: Current issu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oie, J. D. & Dodge, K. A.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Crick, N. R., Casas, Juan F., & Ku, Hyon-chin.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 Psychology*, 35(2), 376-385.
- Crick, N. R., Casas, Juan F., & Monique, Mosher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Dodge, K. A. (198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ltruism in children. In C. Zahn-Waxler, E. M. Cumming, & R. Iannotti (Eds.), *Altruism and aggression - Biological and social orig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Newman, J. P. (1981). Biase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75-379.
- Dodge, K. A., Murphy, R. R.,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cue detection skills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 213).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4-314.
- Hodges, E. V. E., Ernest, V. E., Boivin, Michel, Vitaro, Frank, Bukowski, William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d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Huesmann, L. R., & Guerra, N. G.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08-419.
- Hymel, S. (1986). Interpretations of peer behavior: Affective bia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431-445.
- Hymel, S., Wagner, E., & Butler, L. J. (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ren: Origin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Novaco, R. W. (1978). Anger and coping with stres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In J. P. Foreyt & D. P. Rathjen (Ed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New York: Plenum.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ichard, B. A., & Dodge, K. 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226-233.
- Rigby, K., & See, P.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615-627.
- S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40), 580-588.
- Wass, G. A. (1988). Social attributional biases of peer-rejected and agg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571-575.

A Study on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Ock Im Choi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in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girls and 60 boys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in Seoul. Their age range was 13 to 16 years ol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was assessed by Measure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was assessed by Modified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Scale; and peer nomination for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was assessed by Peer Nomination Instrument. The ANOVA tests revealed 1) differences between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and normal adolescents' in all factor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3 factors of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2) significant within group differences in 2 factors of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in the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3)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age in 1 factor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Keywords: cognitive characteristics, peer relationships,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normal belie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